

전남, 햇빛·바람 타고...글로벌 재생에너지100 중심지 도약

발전특구·특화산단·펀드 조성 등 4대 분야 22개 전략과제 마련 전문가 보고회서 비전·목표 공유

전남도가 지난 23일 글로벌 재생에너지100(RE100) 목표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에 위해 '전남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마련, 전문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이순형 동산대 교수, 이동호 목포대 교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전KDN, 전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개발공사 및 12개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남도 재생에너지100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안)'은 '전남의 햇빛·바람을 타고, 글로벌 RE100 중심지로 대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재생에너지 발전특구 ▲RE100 솔루션 ▲RE100 기본소득 ▲RE100 글로벌 확산 등 4대 분야 22개 전략과제와 재생에너지 4법 재·개정, 추진단 운영 등 2대 추진체계 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특화된 전남에서 발전사업자에게는 재생에너지 발전특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100 솔루션을 지원하며, 도민에게는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전남 재생에너지100을 글로벌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특구'에선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단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속

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100 솔루션'은 재생에너지100 특화산단,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업지원 센터 등 차별화된 RE100과 분산에너지 솔루션을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오고 싶은 전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RE100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펀드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기금 등 도민들에게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을 적극 도입, 확대할 계획이다.

'RE100 글로벌 확산'은 전남 RE100 정형 조성, 국제행사 유치 등을 통해 전남 RE100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전남을 세계인이 찾는 RE100 허브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머리를 맞대고 차별화된 과제를 발굴해 왔다. 또한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재·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전남에 대한 민국 RE100·분산에너지 중심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전남에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재가 몰려오고 활약할 수 있게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전남 RE100·분산에너지 정책의 최종 목표"라며 "재생에너지 전국 1위 경쟁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남만의 RE100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생활 속 불편 해결사 '민원메신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4일 무안 스키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전남도 민원메신저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내년 '더 위대한 전남' 만들기 힘 모으자"

실국 정책회의서 전략 발표 역의 유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5년에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더 위대한 전남'으로의 대도약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문화·전통 유산이 풍부하고, 이에 따른 발전 잠재력도 충분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4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실국 정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올해 도정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며, 각 실국별로 내년 비전, 사

업 등의 구상을 지시했다. 김 지사가 꼽은 주요 도정 성과는 목포대·순천대 통합 국립과대학 설립 추진 합의, 1조4000억원 규모 여수 모도 LNG터미널 착공,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버뮤다 등 농업재해 1800억원 인정, 전남도 출생기분수당 추진 발표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 예산 대상 선정 등이다.

그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 수준을 끌어올릴 것을 독려했다. 전남의 가구소득은 6609만원으로 전국 8위, 1인당 개인소득은 2375만원으로 9위, 지역내총생산(GRDP) 96조2000

억원으로 8위에 올랐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최근 여수국가산단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지는 등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남의 여전한 대규모 역의 유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남의 역외 유출 규모는 32조원대로, 수도권과의 역외유입이 70여조원이나 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문제"라며 "통계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올림픽스타 안산·김옥금 선수와 양궁 체협

광주시, 18개 학교와 프로그램 진행

광주시가 내년 세계양궁대회 불 보 성을 위해 마련한 올림픽 스타 안산·김옥금 등 지역 양궁 실업팀 선수와 함께하는 '특별한 양궁체협'이 큰 인기를 끌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11월 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4개교에서 '찾아가는 양궁체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안산·김옥금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지역 양궁 실업팀 선수들이 양궁 체험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양궁체협에는 광주시, 광주은행, 남구청 양궁팀과 광주시 장애인양궁팀 등 지역 실업팀 선수들이 강사로 참여해 76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호흡했다.

학생들은 양궁 교구를 활용해 기본 동작과 기술을 배우고, 조별 게임 등을 통해 양궁을 체험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양궁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했고, 다음에는 양궁장에 가서 실제로 활을 쏘고 싶다"며 "내년에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도 보러가고 싶다"고 말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수학교 교사를 역시 "학생들과 외부 체육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데, 접근성이 쉽지 않은 종목도 함께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양궁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기 기대한다"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가 내년 9월 광주에서 연달아 개최되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스포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감사활동 전국 특·광역시 1위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광주시는 감사원 주관 '2024 자체감사활동(2023년 감사실적)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광역시 중 1위이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감사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677개 기관의 감사활동을 심사한다. 심사 기준은 감사 기반 개선, 감사 기획·수행 역량, 감사성과, 사후관리, 적극행정 지원 등 10개 지표를 평가해 A부터 D까지 등급을 나눈다.

광주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모범사례 발굴, 감사기구 간 협력, 일상감사화

성화, 청렴기동반 활동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올해 감사 기초는 사후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부적절한 행정의 근본 원인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피감기관에 도움을 주는 감사를 통해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105억 긴급 투입

어르신 부식비·난방비 지원

전남도가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긴급히 민생지원금을 투입하는 등 돌봄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1월부터 동절기 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시행했으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더더운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총 105억원의 민생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추가 편성했다. 도는 지원금 투입 이전부터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04억원을 지원했다.

또,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정부 에너지 바우처사업의 보충재로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7만 7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난방비를 한시 지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www.kwangshin.ac.kr